



한국어 발음 교수법

정 명 숙 [소속이 없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소리에 관한 것

제3장 형태에 관한 것

제4장 띄어쓰기

제5장 그 밖의 것

제1장 발음 교육이 왜 필요한가.



1 발음 교육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림: 외국인이 한국 슈퍼마켓에서 아저씨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고 있는 모습. 아저씨는 외국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음.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말풍선 있음. 외국인: 방 있어요? 아저씨: 여기가 모텔인 줄 아나? 왜 여기에서 방을 찾아?〉

한국어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바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역시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좋은 발음이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좋은 발음’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 준다는 것이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인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뗐는데, 한국인이 “네?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학생들은 매우 위축될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학생들은 한국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한국어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발음 좋은 학생들은 한국어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결과 한국어로 말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한국어 실력이 그만큼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은 말하기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발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언어의 모어 화자(native speaker)처럼 말하는 것이다. 즉,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처럼 영어를 말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 사람처럼, 혹은 영국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어휘나 문법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휘나 문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발음이나 억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잘 배운 최고급 단계의 학생들 중에는 정말 어휘도 많이 알고 있고, 문장도 매우 정확하게 쓰는 학생이 있다. 때로는 보통의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어휘와 문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한국어 어휘와 문장을 정확하게 쓴다고 해도 발음이나 억양이 한국 사람들과 달라서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라는 말을 꼭 듣게 되는 것이다.

발음과 억양은 말을 할 때의 '첫인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발음과 억양은 외국어를 할 때 한 마디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반해 사람도 여러 번 만나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어휘나 문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는 한 마디의 말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문장을 하다 보면 틀린 어휘도 나올 수 있고, 틀린 문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발음과 억양은 외국어를 할 때의 첫인상과 같은 존재로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처럼 말하고 싶다'는 외국인 학생들의 목표에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POINT

- ▶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어 발음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목표인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도록 하는 것'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어, 이 자신감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늘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첫째, 현재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발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표준발음법에서는 모음 'ㅐ'는 [ɛ]로, 'ㅔ'는 [e]로 발음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방송 아나운서들을 제외하고 이 두 모음을 다르게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ㅐ'와 'ㅔ'를 구별해서 발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이 두 발음을 다른 발음으로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의 발음을 들었을 때 '게'(crab)를 '개'(dog)로 오해하게 될 것이다.



POINT

- ◆ 표준발음법: 표준발음법은 1988년에 만들어져서 1989년부터 시행된 ‘표준어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어의 표준이 되는 발음을 정하였다. 표준발음법은 자음, 모음의 발음, 음의 길이, 소리의 변화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다. 표준발음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마당’ 메뉴에서 ‘어문규정’, ‘표준어규정’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표준발음법에서는 장모음(long vowel)과 단모음(short vowel)을 구별해서 발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snow’는 [눈:]으로 길게 발음해야 하고, ‘eye’는 [눈]으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짧게 발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발음이 다르다고 배운 학생들은 한국 사람의 발음을 들었을 때 ‘눈(snow)’를 ‘눈(eye)’로 오해할 수 있다. 결국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ㄴ’과 ‘ㄹ’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고 있고, ‘장모음’과 ‘단모음’도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은 한국인들의 발음을 들었을 때 문맥(context)상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 오해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발음은 ‘표준 발음’과 많이 달라져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발음을 가르칠 때는 ‘표준발음법’에서 정한 발음법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실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 ‘한국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림 그려주세요!

꽃이 예쁘다

[꼬치] (○)

[꼬시] (×)

이 외에도 한국 사람들의 발음을 들어 보면 ‘꽃이 예쁘네요’라는 문장에서 ‘꽃이’를 [꼬치]로 발음하지 않고 [꼬시]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엌에’나 ‘무릎이’도 [부어께]나 [무르피]가 아니라, [부어게]나 [무르비]와 같이 편하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발음은 분명히 잘못 된 발음이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인의 발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음도 있다는 것을 외국인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꼬시]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꽃이’의 발음이 [꼬시]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며, 학생들에게는 [꼬치]로 발음을 하도록 하되, [꼬시]로 발음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꼬시]라는 발음을 들으면 ‘꽃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발음을 가르칠 때는 ‘표준 발음’과 달라진 ‘현실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 좋고, 비표준 발음이지만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용 발음’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제2장

어떤 발음을 가르칠 것인가.



1

한국어 발음 수업에서 꼭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발음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 즉 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발음 교육’은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발음을 듣고 구별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발음 교육’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한국어 자음, 모음’의 발음이나 ‘음운 규칙’에 따른 발음이다. 그러나 자음, 모음의 발음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억양에 대한 교육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 자음이나 모음의 정확한 발음은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으나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한국어를 오랫동안 배운 학생들 중에는 개별 음소의 발음은 어느 정도 구별하여 할 수 있지만 억양이 부자연스러워 외국인의 발화라는 인상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음, 모음 하나하나의 발음은 조금 부정확해도 억양이 자연스러우면,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결국 자연스러운 한국어 억양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억양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발음 교육의 대상은 크게 1) 자음, 모음의 발음, 2) 억양으로 나눌 수 있다.



POINT

❖ 한국어 발음을 가르칠 때 ‘자음, 모음의 발음’과 ‘억양’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 자음, 모음의 발음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다.
- 억양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한글을 가르치기 때문에 ‘발음’도 ‘자음과 모음의 발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글자를 가르치는 것과 ‘발음 교육’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물론 한글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를 가르치면서 그 글자가 어떤 음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나 글자를 가르치면서 ‘가, 카, 까’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하도록 하는 것까지 한다면 한글을 가르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글을 가르칠 때는 ‘가, 카, 까’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대체로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지 정도에 대해서만 교육하고 이 발음의 정확한 구별은 ‘발음 수업’ 시간에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과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한다면 ‘자음, 모음의 발음’과 ‘억양’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목표나 학생들의 구성, 교육 시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자음, 모음, 하나하나의 발음에 대한 교육보다 억양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를 배울 때 자음, 모음의 발음을 익히는 것보다 억양을 익히기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할 때 제일 먼저 억양을 익히고, 그 다음으로 모음, 자음의 발음을 익히게 된다고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이 모국어의 억양을 아주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어의 억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억양을 먼저 교육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계속해서 한국어의 억양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단어가 특별한 강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 억양이 없고, 한국어 억양이 매우 규칙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쉽게 가르칠 수 있다.

둘째, 억양이 자음, 모음의 발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은 ‘가수’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가’는 높고 강하게(H: high tone), ‘수’는 낮은 음(L: low tone)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가’를 높고 강한 음으로 발음하면 한국인들에게는 ‘카’라는 음으로 들리게 된다. 한편 ‘가수’라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가수예요’의 경우 ‘가’는 낮은 음으로, ‘수’는 높은 음으로 발음된다. ‘가수’라는 단어를 늘 이렇게 ‘가(H)수(L)’로 발음을 하던



학생들에게 나중에 ‘가(L)수(H)’로 발음하도록 해도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억양을 먼저 가르친 후에 ‘가수’라는 단어를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가수’를 ‘가(L)수(H)’로 발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카수’라는 발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

한국어 발음 수업에서 가르쳐야 하는 억양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억양(intonation)은 어떤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로서, 노래의 멜로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를 보면 높낮이가 있고,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소리가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즉 높낮이의 변화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또 어떤 소리가 긴지, 짧은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악보를 보면 마디와 절이 있듯이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로 발음해야 하는지,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로 발음해야 하는지, 즉 어디에서 끊어서 발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다음으로 외국어를 발음할 때 모국어를 말할 때보다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우 느린 속도로 말을 하면 절대로 그 언어를 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속도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억양을 가르칠 때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로 말할 때와 똑같은 억양으로 한국어를 말한다. 이처럼 외국어를 할 때 자기 모국어의 억양대로 말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언어가 어떤 억양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한국어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으면 학생들에게 한국어 억양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의 모국어에 따라 한국어 억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교수 Tip

영어권 학생들의 한국어 억양

- 첫 번째 음절을 강하게, 높은 음으로 발음한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영어권 학생)
- 내용이 연결되는 문장의 끝을 올려서 발음한다.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 사람)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영어권 학생)
- 질문을 할 때 문장의 끝을 미리 올려서 발음한다.
 ‘운동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
 ‘운동을 좋아해요?’ (영어권 학생)

영어권 학생들은 한국어를 들을 때 대부분 첫 번째 음절에 ‘강세(accent)’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할 때 첫 번째 음절이 강하게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권 학생들은 한국어 문장을 말할 때 첫 번째 음절에 액센트를 주어서 강하게 발음하는데, 강하게 발음하면 보통 음높이도 같이 올라간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첫 번째 음절이 강하게 발음되기는 하지만 항상 높은 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음으로 발음될 때가 더 많다.



POINT

- 강세(accent) : ‘r port’ 와 ‘rep rt’ 처럼 같은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강하거나 높은 소리로 발음되는 음절이 다르면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언어를 ‘강세 언어’ 라고 할 수 있다. ‘강세’ 는 소리의 강약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높낮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강약’ 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언어의 예로는 영어를 들 수 있고, ‘고저’ 로 강세를 표현하는 언어의 예로는 일본어나 프랑스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 질문이 아닌 경우에도 다음 문장과 연결해서 말을 할 때는 문장 끝을 올려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영어권 학생들이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라는 문장을 말할 때 ‘좋아해요’의 끝 부분을 올려서 발음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문장을 질문이라고 오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말의 억양도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 차이가 있다. 한국어나 영어나 물어보는 말을 할 때는 보통 문장의 끝을 올리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을 매우 낮게 발음하고 마지막 음절만 올리면서 발음한다. 그런데 영어는 강세가 있는 음절부터



올려서 발음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과 같이 영어권 학생들이 한국어 문장을 말할 때 영어 억양의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영어권 학생들에게 한국어 억양을 가르칠 때는 이러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교수 Tip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억양

- 중국어의 단어 성조대로 발음한다.
 ‘날씨가 더워요.’ (한국 사람)
 ‘날씨가 더워요.’ (중국인 학생)
- 두 음절씩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간만이에요.’ (한국 사람)
 ‘(오래)(간만)(이에요.)’ (중국인 학생)

중국인 학생들도 한국어를 말할 때 중국어의 억양대로 말을 하는데, 중국어는 성조(tone) 언어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어의 단어 성조에 따라서 한국어 단어를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 학생들이 ‘날씨가 더워요’라고 할 때, ‘날씨가’는 중국어 ‘天气(tiānqì)’와 같은 성조로 발음하고, ‘더워요’도 중국어 ‘熱(rè)’처럼 높은 음에서 출발해서 소리가 낮아지는 성조로 발음한다.



POINT

- 성조(tone) : 중국어의 ‘妈(mā), 麻(m), 马(mǎ), 骂(m)’처럼 같은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단어 뜻이 달라지는 언어를 ‘성조 언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말을 할 때 두 음절씩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중국어 단어가 대부분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한 단어가 여러 음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예: 아름답다), 짧은 단어를 한꺼번에 붙여서 발음할 때가 많은데(예: 읽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아름)(다워요)’나 ‘(읽을) (수 있어.)’처럼 두 음절씩 끊어서 발음하면 매우 어색하게 들린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문장을 말할 때 중국어의 억양에 따라, 즉 중국어의 단어 성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을 하거나 두 음절씩 끊어서 발음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억양을 가르칠 때 이런 점에 주의해서 교육해야 할 것이다.



교수 Tip

일본인 학생들의 한국어 억양

- 끝을 내리면서 발음하거나 올렸다가 내리면서 발음한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한국 사람)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일본인 학생 1)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일본인 학생 2)
- 마지막 음절을 길게 빼지 않고 짧게 끝낸다.

 (한국 사람)

 (일본인 학생)
- 받침 있는 음절을 길게, 높은 음으로 발음한다.

 (한국 사람)

 (일본인 학생)
- 일본어의 단어 강세대로 발음한다.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한국 사람)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일본인 학생)

일본어는 대체로 끝이 내려가는 억양을 갖는다. 그리고 끝을 올렸다가 내리는 억양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일본인 학생들은 한국어로 말을 할 때도 끝을 내리면서 발음하거나 끝을 올렸다가 내리는 억양으로 발음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인 학생들도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억양대로 한국어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인 학생들은 한국어로 말할 때 끝 부분을 짧게 끊어 버리는 식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일본어가 ‘모라(mora)’ 언어로서 일본어 글자 하나하나가 같은 길이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어는 끝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특징이 있는데, 끝 음절을 짧게 발음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부분을 완전하게 발음하지 않고 중간에서 끊었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억양을 가르칠 때는 마지막 음절을 길게 발음하도록 지도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된다.



POINT

- 모라(mora) : 일본어를 발음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를 거의 같은 길이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것을 ‘모라’ 라고 한다. 노래를 부를 때 ‘박자’ 와 비슷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일본’ 이라고 하면 두 박자가 되지만 일본말로 ‘にほん(nihon)’ 또는 ‘にっぽん(nippon)’ 이라고 할 수 있는데, ‘にほん(nihon)’ 은 글자가 세 개이므로 3모라, 즉 세 박자로 발음해야 하고, ‘にっぽん(nippon)’ 은 글자가 네 개이므로 4모라, 즉 네 박자로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어에도 한국어의 받침과 같은 자음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이것을 ‘っ’나 ‘ん’이라는 글자로 나타낸다. ‘っ’는 [p]나 [t]나 [k] 음이 되고, ‘ん’은 [m]나 [n], 또는 [ŋ] 음이 된다. 일본어는 이런 자음이 있는 경우 이 음절은 길이가 두 배로 길어지고, 이 음절에 강세가 와서 높은 음으로 발음되는 강세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일본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할 때도 ‘언네[어~언.니]’와 같이 받침이 있는 음절을 높은 음으로 길게 발음하는 것이다.

일본어는 ‘고저 악센트’가 있는 언어로서 단어마다 고유한 강세가 있다. 그래서 일본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할 때 일본어의 단어 강세를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일본인 학생들이 하는 한국말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게 들리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런 억양이 나타난 원인이 일본어 억양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억양을 가르치는 교사가 일본어가 어떤 억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어는 어떤 억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지도를 한다면, 학생들은 한국어 억양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2 자음, 모음 중에서 한국어 발음 수업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음, 모음의 발음을 가르칠 때는 모든 자음, 모든 모음의 발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령 모음 ‘ㅏ’를 발음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모음 ‘ㅏ’를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발음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발음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다루면 된다.

모음의 발음 중 외국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으로 대표적인 것은 ‘ㅓ’와 ‘ㅜ’의 구별, ‘ㅡ’와 ‘ㅓ’의 구별 등이 있으며, 자음의 발음으로는 ‘ㄱ-ㅋ-ㆁ’과 같은 ‘평음-격음-경음’의 구별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 교육은 학생들의 모국어에 없는 한국어의 자음, 모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잘못 발음하는 것을 바로잡거나 발음의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POINT

- ◆ 평음, 격음, 경음 : 한국어의 자음은 ‘ㄱ-ㅋ-ㆁ’, ‘ㄷ-ㅌ-ㄴ’, ‘ㅂ-ㅍ-ㅁ’, ‘ㅈ-ㅊ-ㅇ’ 와 같이 세 음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ㅅ’ 계열도 ‘ㅆ-ㅅ’ 두 가지 소리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ㄱ, ㄷ, ㅂ, ㅈ, ㅅ’ 를 ‘평음’ 또는 ‘여린소리’ 라고 하고, ‘ㅋ-ㅌ-ㅍ-ㅊ’ 를 ‘격음’ 또는 ‘거센소리’ 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ㄴ-ㄷ-ㅁ-ㅅ-ㅆ’ 를 ‘경음’ 또는 ‘된소리’ 라고 한다.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의 모국어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음 교육에서는 ‘ㄴ, ㄹ, ㅇ’과 ‘ㄱ, ㄷ, ㅂ’ 등의 받침 발음, 받침 ‘ㄹ’의 발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음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한편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받침 ‘ㄹ’뿐만 아니라 ‘음절 초’에 오는 ‘ㄹ’에 대한 발음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어떤 언어권인지에 따라 발음 수업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 수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학생들이 어떤 발음을 잘 못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모국어에 따라 어떤 발음 오류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구성에 따른 발음 수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영어권 학생들, 중국어권 학생들, 일본어권 학생들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류 유형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 교수 Tip

영어권 학생들의 한국어 자음, 모음 발음 오류

● 자음

‘ㄱ-ㅋ-ㆁ’ 와 같은 ‘평음-격음-경음’ 을 구별하지 못한다.

‘우리’ 의 ‘ㄹ’ 을 [r]로 발음한다.

‘시’ 를 영어의 ‘she’ 처럼 발음한다.

‘웃, 꽃’ 등을 [온], [꼐]으로 발음하지 않고 [오시], [꼬치]로 발음한다.

같은 자음 두 개를 자음 한 개로 발음한다. (예: 엄마 [어마])

● 모음

‘ㅏ’ 와 ‘ㅑ’ 를 구별하지 못한다.

‘ㅡ’ 와 ‘ㅜ’ 를 구별하지 못한다.

‘ㅣ’ 발음을 잘 못 한다.

● 음운 규칙

‘먹는, 국물’ 등을 [멍는], [궁물]로 하지 않고, [먹는], [국물]로 발음한다.

‘달님, 신라’ 등을 [달림], [실라]로 하지 않고, [달님], [신라]로 발음한다.

‘발전, 발달’ 등을 [발썸], [발딸]로 하지 않고, [발전], [발달]로 발음한다.



위에서 제시한 영어권 학생들의 자음, 모음 발음 오류는 모두 영어와 한국어의 발음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개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발음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자음, 모음의 발음을 가르친다면 위에 제시한 것과 관련된 발음 수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 교수 Tip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자음, 모음 발음 오류

● 자음

‘ㄱ-ㅋ-ㆁ’ 와 같은 ‘평음-격음-경음’ 을 구별하지 못한다.

‘우리’ 의 ‘ㄹ’ 을 [l]로 발음한다.

받침 ‘ㄹ’ 을 [r]로 발음한다.

받침 ‘ㄱ, ㄷ, ㅂ’ 를 잘 발음하지 않는다. (예: 못해요 [모해요])

같은 자음 두 개를 자음 한 개로 발음한다. (예: 엄마 [어마])

‘시’ 를 발음할 때 영어의 C처럼 [si]로 발음한다.

‘샤’ 를 ‘차’ 로 발음한다.

● 모음

‘ㅣ’ 와 ‘ㅓ’ 를 구별하지 못하다.

‘ㅡ’ 와 ‘ㅜ’ 를 구별하지 못하다.

‘ㅓ’ 와 ‘ㅜ’ 의 발음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ㅣ’ 발음을 잘 못 한다.

‘녀, 해’ 는 잘 발음하지만 ‘년, 행’ 등을 [니엔], [항]으로 발음한다.

● 음운 규칙

‘산에’ 를 [사네]로 하지 않고, [산.에]처럼 음절을 따로따로 발음한다.

‘먹는, 국물’ 등을 [멍는], [궁물]로 하지 않고, [먹는], [국물]로 발음한다.

‘아기’ 를 [agi]로 발음하지 않고, [aki]로 발음한다.

‘발전, 발달’ 등을 [발쩐], [발딸]로 하지 않고, [발전], [발달]로 발음한다.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자음, 모음 발음 오류도 역시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 학생들이 받침 ‘ㄱ, ㄷ, ㅂ’를 잘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어에 이런 받침이 없기 때문이며, ‘녀, 해’는 잘 발음하지만 ‘년, 행’ 등을 [니엔], [항]으로 발음하는 것은 중국어 ‘모음+자음’이 결합 중에서 ‘ㄱ+ㄴ, ㅏ+ㅇ’과 결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산에’의 받침 ‘ㄴ’을 다음 음절로 연결시켜서 [사네]로 발음하지 않고 [산.에]로 발음하는 것은 중국어가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각각에 고유한 성조가 있어서 중국어의 경우 음절과 음절을 연결해서 발음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오류 중에서 ‘시’를 영어의 C처럼 발음하는 것과 ‘샤’를 ‘차’로

발음하는 것은 학생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시’나 ‘씨’를 영어의 C처럼 발음하는 것은 북방 지역의 학생들에게서 자주 발견되고, ‘샤’를 ‘차’로 발음하는 현상은 남방 지역의 학생들에게서 발견된다. 중국인 학생들에게 ‘1, 2, 3, 4’를 발음하도록 해 보면 북방 지역의 학생들은 ‘일, 이, 셋, 싸’로 발음하고, 남방 지역의 학생들은 ‘일, 이, 참, 차’로 발음한다.

이렇게 몇 가지 예들은 학생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이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자음, 모음 발음 오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자음, 모음의 발음을 가르친다면 여기에 제시한 발음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교수 Tip

일본인 학생들의 한국어 자음, 모음 발음 오류

● 자음

‘ㄱ-ㅋ-ㆁ’ 와 같은 ‘평음-격음-경음’ 을 구별하지 못한다.

‘산-삼-상’ 과 ‘밭-밥-박’ 의 받침 발음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받침을 하나의 음절로 발음할 때가 많다. (예: 김치 [기무치])

받침을 다음 음절의 자음과 비슷한 음으로 발음한다. (예: 공부 [곰부])

받침 ‘ㄹ’ 을 [루]로 발음한다. (예: 딸기 [따루기])

‘빨리’ 를 [빠리]로 발음한다.

● 모음

‘ㅣ’ 와 ‘ㅏ’ 를 구별하지 못한다.

‘ㅡ’ 와 ‘ㅜ’ 를 구별하지 못한다.

‘ㅣ’ 발음을 잘 못 한다.

‘와, 위’ 등의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예: 도서관 [도서관])

● 음운 규칙

‘달님, 신라’ 등을 [달림], [실라]로 하지 않고, [달님], [신라]로 발음한다.

‘아기’ 를 [agi]로 발음하지 않고, [aki]로 발음한다.

일본인 학생들도 일본어와 한국어의 발음 차이 때문에 한국어 자음, 모음을 발음할 때 위와 같은 발음을 잘 하지 못한다. 일본인 학생들의 자음 발음 중에서 대부분의 오류는 받침 발음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본어에 받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본어의 경우 ‘っ’나 ‘ん’이라는 글자로 받침 발음을 나타내는데,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ほんと[honto], ほんが[hongga], ほんも[hommo]’와 같이 ‘ん’이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서 [n], [ŋ], [m]으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공장, 공부, 심다, 심고’처럼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제시한 일본인 학생들의 한국어 자음, 모음 발음 오류 유형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본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권 학생들, 중국인 학생들, 일본인 학생들의 발음 오류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어 발음 수업 시간에 다루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 보다 많은 언어권 학생들의 오류 유형에 대해 신지 못하였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은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발음이 다른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학생들에게 발음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발음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면 된다.

제3장

한국어 발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발음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어 발음에 대한 교육은 말하기나 듣기 수업 중에 할 수도 있고, 발음만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을 따로 구성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별도의 발음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진다.

도입

제시·설명

연습

사용

마무리



POINT

- 도입: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
- 제시·설명: 발음하는 방법이나 듣고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단계
- 연습: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는 단계
- 사용: 말하기나 듣기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 마무리: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단계

2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발음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될까요? (도입 단계)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그 날의 발음 수업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발음 수업의 교육 내용이 되는 발음이 포함된 단어나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던져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발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그 날의 교육 대상이 되는 발음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듣기 자료를 들려줌으로써 듣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발음을 잘못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소개하면서 발음 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학습자들에게 발음 연습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 동기를 갖게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이 된다. 이러한 예로는 택시를 타고 ‘신촌’에 가고 싶었는데, 택시 기사가 ‘신천’에 내려 주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와 ‘오’ 발음의 구별이 교육의 목표임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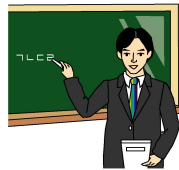
발음 방법이나 청취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시·설명 단계)

제시·설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발음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왜 그런 발음을 잘 못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게 된다.



● 교수 Tip

어떤 선생님의 설명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어 ‘어’와 ‘오’ 발음을 공부해 봅시다. ‘오’는 입술을 둥그랗게 모으고 발음하고, ‘어’는 입술을 모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입을 벌리고 발음하면 됩니다.



한국어 ‘어’와 ‘오’ 발음을 공부해 봅시다. ‘어’하고 ‘오’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제가 발음하는 것을 잘 보고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어’, ‘오’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 선생님은 ‘어’와 ‘오’의 발음 차이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선생님은 두 발음의 차이를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처럼 발음법을 설명하더라도 교사가 먼저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교수 Tip

어떤 선생님의 설명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선생님의 설명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 ☺ (그림: 학생들에게 말로 원가를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 모습) '가' 는 약하게 발음하고, '카' 는 강하게 발음해서 목가 많이 나오게 해야 하고, '까' 를 발음할 때는 목어 발음해야 합니다.

- (그림: 티슈를 입 앞에 펼쳐 들고 있는 선생님 모습) '가 - 카 - 까' 를 발음할 때 목에서 나오는 공기의 양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그림: 앞의 선생님이 '가' 를 발음하는 옆모습. 티슈가 바람에 조금 날림.)

가

(그림: 앞의 선생님이 '카' 를 발음하는 옆모습. 티슈가 바람에 많이 날림.)

카

(그림: 앞의 선생님이 '까' 를 발음하는 옆모습. 티슈가 전혀 안 날림.)

까

학생들에게 발음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교사는 최대한 명확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발음 방법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발음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발음 방법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정확한 발음 방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음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습 단계)

연습 단계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에 따라 자신의 발음을 교정해 보는 연습을 하게 된다. 발음 연습은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을 연습해서 그 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음이 포함된 단어들을 가지고 발음 연습을 하게 한다. 단어 단위에서 발음 연습이 충분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문장을 연습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대화나 이야기를 이용해 발음 연습을 시켜야 한다. 보통 발음을 교육할 때 수업 시간에는 발음을 잘 하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원래의 발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길이를 점점 늘려가면서 발음을 연습하면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음이 좋아질 수 있다.

연습 단계에서는 발음을 계속 반복해서 해 보도록 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발음 연습을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발음 연습을 시킬 때는 학생들이 발음 연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서 사용해야 한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게임을 이용하거나 비디오나 오디오 자료를



활용하거나 재미있는 표현(어머머머!), 같은 음이 반복되는 말놀이 문장(예: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을 사용하거나 발음 연습을 하기 좋은 노래를 선택해서 사용하거나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은 발음 시간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POINT

■ 다음 문장은 어떤 발음을 연습시킬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1.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2. 저기 저 말뚝을 말 댈 말뚝인가, 말 못 댈 말뚝인가.
3. 저기 저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4. 옆집 팔죽은 붉은 팔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5. 한국관광공사 객진광 관광과장
6. 서울특별시 특허허가와 허가과장 허가장
7. 내가 그린 구름그림은 새털구름 그린 구름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그림은 깃털구름 그린 구름그림이다.
8. 모리 씨는 머리하러 머리머리방에 가요.

여기에 제시한 문장들은 한국어 말놀이 문장 중에서 발음 연습을 하기에 좋은 문장을 뽑아 놓은 것이다. 1번 문장은 일본인 학생들에게 받침 ‘ㄴ, ㅇ’을 연습시키기에 좋은 문장이고, 2번은 중국인이나 일본인 학생들에게 받침 ‘ㄹ’을 연습시킬 때 사용하면 좋다. 3번, 4번은 ‘평음-격음-경음’ 발음을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5번, 6번은 이중모음 ‘ㅏ’를 단모음 ‘ㅑ’로 발음하는 학생들에게 연습시키면 좋은 문장이다. 7번은 모음 ‘ㅏ’와 ‘ㅑ’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에서, 8번은 모음 ‘ㅏ’와 ‘ㅑ’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에서 사용하면 좋다.

1~7번은 알려져 있는 문장 중에서 선택한 것이며, 8번은 ‘ㅏ’와 ‘ㅑ’의 구별 연습에 활용할 만한 문장이 없어서 만들어 본 것이다. 이렇게 발음 연습에 사용할 만한 문장이 없다면 교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다.

4 연습한 발음을 이용한 실제적인 의사소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용 단계)

마지막으로 사용 단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연습한 발음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습 단계에서 반복 연습한 발음을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발음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의 발음을 녹음하거나 대화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활동이 끝난 후에 들려주면서 학생들의 발음이 좋아진 것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연습한 발음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제시어로 하여 학생들끼리 역할극(role play)을 하게 하거나 수업 시간에 다룬 짧은 대화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켜 대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의 활동은 연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발음에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운 발음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POINT

■ 다음 문장은 어떤 발음을 연습시킬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다음은 '자기소개'를 위한 역할 카드입니다. 어떤 발음을 교육할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1.

이름: 고서영
학교: 도서대학교
전공: 도시공학
사는 곳: 고덕동

2.

이름: 장철진
학교: 창조대학교
전공: 문예창작
사는 곳: 창신동

3.

이름: 한정희
학교: 문화대학교
전공: 환경공학
사는 곳: 천호동

첫 번째 카드는 ‘ㄷ’와 ‘ㄱ’의 발음 구별에 대한 발음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카드는 ‘ㅈ’와 ‘ㅊ’의 발음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카드는 한국어의 음운 규칙 중에서 ‘ㅎ’이 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유음(ㄹ) 사이에서 약화되거나 탈락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연습시킨 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발음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활동으로 역할극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어떻게 역할극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외에도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상담을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세계에서 의사소통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므로 수업 시간에 제시하는 의사소통 활동도 가능하면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



5 발음 수업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발음을 평가해 주고 그 시간에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숙제를 내 줄 수 있다. 학습자들의 발음을 평가하는 것은 사용 단계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때 교사는 주로 학생들의 발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이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숙제로는 교실에서 배운 발음법을 한국인의 발화에서 발견하도록 하거나,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어 발음 교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좀더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교실 밖에서도 항상 한국어를 귀기울여 듣도록 권장하는 일이다. 발음 교육의 효과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발음 수업만으로 나타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발음이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후 지속적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음 교육 자료 1 ▶ 문장 억양

■ 다음 문장을 읽어 보세요.

미영이는 영진이를 좋아해요. 영진이도 미영이를 좋아해요.

■ 한국어 억양을 알아봅시다.

1.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미영이는 영진이를 좋아해요. 영진이도 미영이를 좋아해요.

2. 다음 문장을 잘 듣고 억양이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

영진이가 전화해요.
영진이한테 전화해요.
영진이한테도 전화해요.
영진이한테까지 전화해요.

3. 다음 문장은 어떻게 말할까요?

미영이를 좋아해요.
영미를 좋아해요.
나를 좋아해요.
날 좋아해요.



4. 다음 문장을 잘 듣고 억양이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

노란색을 좋아해요.
파란색도 좋아해요.
하얀색은 싫어해요.
까만색도 싫어해요.

5. 다음 문장은 어떻게 말할까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요.
삼촌도 보고 싶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참 예쁘네요.

■ 한국어 억양을 연습해 봅시다.

1. 한국어 억양을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을 읽어 보세요.

- | | |
|----------------|------------------|
| 1) 나나나나 나나나나. | 2) 나나나 나나나나나. |
| 3) 마마마마 마마마마마. | 4) 마마 마마마마마. |
| 5) 가가가가 가가가. | 6) 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 |
| 7) 사사사사 사사사사. | 8) 차차차 차차차차차차. |
| 9) 뽀뽀뽀뽀뽀 뽀뽀뽀뽀. | 10) 하하하하 하하하. |

2. 다음 문장도 읽어 보세요.

어제는 할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집에 갔다왔어요. 고모하고 삼촌들도 왔어요. 사촌 언니는 안 왔어요. 내일이 시험이래요.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억양을 조금 더 연습해 보세요.



쓰기 교육 자료 2 ▶ 문장 억양(교사용)

■ 다음 문장을 읽어 보세요.

미영이는 영진이를 좋아해요. 영진이도 미영이를 좋아해요.



● 교수 Tip

학생들의 억양이 어떤지 잘 관찰하고, 교사가 자연스러운 한국어 억양을 들려줌으로써 한국 사람들과 억양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한국어 억양을 알아봅시다.

1.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미영이는 영진이를 좋아해요. 영진이도 미영이를 좋아해요.



● 교수 Tip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억양이 어떤지 설명해 보게 한다. 두 문장 모두 LHLH LHLH LHLL 억양임을 확인시킨다. (L: low tone, H: high tone)

2. 다음 문장을 잘 듣고 억양이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

영진이가 전화해요.
영진이한테 전화해요.
영진이한테도 전화해요.
영진이한테까지 전화해요.



● 교수 Tip

학생들에게 먼저 한국어의 억양 규칙을 발견해 보게 한 후에 한국어 억양 규칙을 설명한다. 한국어는 처음 두 음절이 LH, 마지막 두 음절이 LH가 되고 중간 부분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음이 된다. 문장 끝은 내려오는 억양이 된다.



3. 다음 문장은 어떻게 말할까요?

미영이를 좋아해요.
영미를 좋아해요.
나를 좋아해요.
날 좋아해요.



●● 교수 Tip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억양 규칙을 적용했을 때 4음절보다 적은 경우에 억양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게 한 후 위 문장의 억양을 설명한다. 한국어의 억양 규칙에 따라 처음 두 음절이 LH, 마지막 두 음절이 LH가 되는데, 3음절인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이 H인데, 끝에서도 두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L가 될 수 있다. L와 H가 경쟁을 하면 H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영’ 보다는 ‘미’가 조금 더 높은 음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음절의 H보다는 마지막의 H가 더 높기 때문에 ‘영미를’은 점점 높아지는 소리가 된다. ‘나를’은 두 음절이기 때문에 LH가 되고, ‘날’처럼 1음절인 경우에는 H만 남아서 올라가는 음이 된다.

4. 다음 문장을 잘 듣고 억양이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

노란색을 좋아해요.
파란색도 좋아해요.
하얀색은 싫어해요.
까만색도 싫어해요.



●● 교수 Tip

역시 학생들에게 먼저 억양이 어떤지 설명해 보게 한 다음, 교사가 한국어 억양을 설명한다. ‘파란색도’, ‘하얀색도’, ‘까만색도’, ‘싫어해요’와 같이 첫 자음이 ‘ㄱ, ㄷ, ㅍ, ㅈ’ 같은 격음이거나 ‘ㄱ, ㄷ, ㅂ, ㅈ, ㅅ’ 같은 경음일 때, 그리고 ‘ㅎ’나 ‘ㅅ’처럼 마찰음일 때는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데, 첫 번째 음절만 H가 된다. 그래서 HH-LH의 억양이 되는 것이다.

5. 다음 문장은 어떻게 말할까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요.
삼촌도 보고 싶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참 예쁘네요.



●● 교수 Tip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HH-LH 억양을 적용했을 때 4음절보다 적은 경우에 억양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게 한 후 위 문장의 억양을 설명한다. 한국어의 억양 규칙에 따라 처음 두 음절이 HH, 마지막 두 음절이 LH가 되는데, 두 번째 음절은 H와 L가 경쟁하지만 H가 살아남아서 결국 HHH 억양이 된다.

■ 한국어 억양을 연습해 봅시다.

1. 한국어 억양을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을 읽어 보세요.

- | | |
|------------------|------------------|
| 1) 나나나나 나나나나. | 2) 나나나 나나나나나. |
| 3) 마마마마 마마마마마. | 4) 마마 마마마마마. |
| 5) 가가가가 가가가. | 6) 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 |
| 7) 사사사사 사사사사. | 8) 차차차 차차차차차. |
| 9) 뽀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 | 10) 하하하하 하하하. |



●● 교수 Tip

한국어의 억양 규칙 LH-LH 혹은 HH-LH에 따라 읽어 보게 하고, 교사의 발음이나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고 여러 번 따라하게 해서 한국어의 억양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이렇게 의미 없는 문장을 이용하면 한국어는 어떤 말이 와도 억양이 같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고, 한국어로 빨리빨리 읽기 어려운 외국인 학생들도 빠른 속도로 말하면서 억양을 연습할 수 있게 된다.

2. 다음 문장도 읽어 보세요.

어제는 할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집에 갔다왔어요. 고모하고 삼촌들도 왔어요. 사촌 언니는 안 왔어요. 내일이 시험이래요.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 교수 Tip

의미 있는 문장을 이용해 한국어의 억양을 연습하는 단계이다.



■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에 주세요.



● ● 교수 Tip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하거나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 보게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말을 녹음해 두었다가 활동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해 주는 것도 좋다.

■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억양을 조금 더 연습해 보세요.



● ● 교수 Tip

한국 텔레비전을 보면서 오늘 배운 한국어의 억양 규칙이 맞는지 확인도 해 보고, 드라마 대사를 따라해 보면서 조금 더 억양을 연습할 수 있는 숙제를 내 준다.



발음 교육 자료 2 ▶ 가, 카, 까

■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림: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는 그림.

■ 다음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시다.

1. 다음을 읽어 보세요.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2. 어떤 발음이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3. 잘 듣고 어떤 발음인지 찾아보세요.

- | | | |
|---------|------|------|
| 1) ① 달 | ② 탈 | ③ 딸 |
| 2) ① 동 | ② 통 | ③ 똥 |
| 3) ① 불 | ② 풀 | ③ 뽕 |
| 4) ① 벌 | ② 펄 | ③ 뽕 |
| 5) ① 공 | ② 콩 | ③ 꿩 |
| 6) ① 개다 | ② 캐다 | ③ 깨다 |



4. 한국 사람의 발음을 듣고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 다음 발음을 연습해 봅시다.

1. 다음을 읽어 보세요.

1)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2) <ㄱ> 가다, 개미	<ㅋ> 코, 크다	<ㄲ> 꼬리, 까만색
<ㄷ> 다리미, 두부	<ㅌ> 타잔, 토끼	<ㄸ> 딸기, 떨어지다
<ㅂ> 비누, 부자	<ㅍ> 파도, 포도	<ㅃ> 뽀뽀, 뿌리

2. 잘 듣고 어떤 발음인지 찾아보세요.

1) ① 달	② 탈	③ 딸
2) ① 동	② 통	③ 뚱
3) ① 불	② 풀	③ 뿔
4) ① 벌	② 펄	③ 뽀
5) ① 공	② 쿵	③ 꾹
6) ① 개다	② 캐다	③ 깨다

3. 노래를 불러 봅시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강충강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테야

4. 다음 문장을 빨리 말해 보세요.

저기 저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5. 다음 그림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 | | |
|-------------|-------------|
| 1) 어디가 아파요? | |
| ① (발 그림) | ② (팔 그림) |
| 2) 뭐 해요? | |
| ① (빨래하는 그림) | ② (발레하는 그림) |
| 3) 무엇이 있어요? | |
| ① (토끼 그림) | ② (도끼 그림) |

■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야기하고 주문을 해 보세요.



메뉴	
비빔밥	4,000원
갈비탕	5,000원
볶음밥	4,000원
콩국수	4,000원
칼국수	4,000원
김 밥	2,000원
떡볶이	2,000원
떡라면	2,000원

■ 다음 문장을 조금 더 연습하세요.

저기 저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옆집 팔죽은 붉은 팔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발음 교육 자료 2 ▶ 가, 카, 까(교사용)

■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림: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는 그림.



● 교수 Tip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발래해요’ 나 ‘팔래해요’ 로 발음한다. 발음이 잘못되었음을 인식시키고, 한국어의 ‘ㅂ-ㅍ-ㅍㅍ’ 같은 발음을 공부해 보자고 한다.

■ 다음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1. 다음을 읽어 보세요.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 교수 Tip

학생들 몇 명에게 읽어 보게 한다. 아직은 이 세 가지 발음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2. 어떤 발음이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 교수 Tip

학생들의 모국어에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려워하는 발음이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언어와 한국어의 차이 때문에 발음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언어와 한국어의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이야기해 본다.

3. 잘 듣고 어떤 발음인지 찾아보세요.

- | | | |
|---------|------|------|
| 1) ① 달 | ② 탈 | ③ 딸 |
| 2) ① 동 | ② 통 | ③ 똥 |
| 3) ① 불 | ② 풀 | ③ 뿔 |
| 4) ① 벌 | ② 펄 | ③ 뽕 |
| 5) ① 공 | ② 궁 | ③ 궁 |
| 6) ① 개다 | ② 캐다 | ③ 깨다 |



●● 교수 Tip

교사가 세 개 중에 한 가지 단어를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답을 찾게 한다. 학생들이 한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을 듣고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어떤 발음이 듣기 어려운지 확인한다.

4. 한국 사람의 발음을 듣고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 교수 Tip

학생들이 먼저 세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답을 잘 찾지 못하면 교사가 하나씩 힌트를 주면서 학생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의 세 발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면 교사가 나중에 확인을 시켜 준다. <평음, 격음, 경음의 구별> 평음(가, 다, 바)는 격음(카, 타, 파)과 경음(까, 따, 뻬)에 비해 음높이가 낮고, 격음과 경음은 음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음의 높낮이로 평음과 격음, 경음을 구분할 수 있다. ‘격음’과 ‘경음’은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양에서 차이가 나는데, ‘격음’을 발음할 때는 목구멍(성대 vocal cord)를 크게 열어서 공기가 많이 나오게 하고, ‘경음’은 목구멍을 좁혀서 공기가 따라나오지 않게 한다. 격음을 발음할 때 공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 항상 마이크 튼 소리가 난다. 공기의 양이 다른 것은 입 앞에 티슈를 대고 발음을 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평음을 발음하면 티슈가 조금 바람에 날리고, 격음을 발음할 때는 티슈가 많이 날리고, 경음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 다음 발음을 연습해 봅시다.

1. 다음을 읽어 보세요.

- | | | |
|------------------------------|------------|--------------|
| 1)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 | |
| 2) <ㄱ> 가다, 개미 | <ㅋ> 코, 크다 | <ㄲ> 꼬리, 까만색 |
| <ㄷ> 다리미, 두부 | <ㅌ> 타잔, 토끼 | <ㄸ> 딸기, 떨어지다 |
| <ㅂ> 비누, 부자 | <ㅍ> 파도, 포도 | <ㅃ> 뽀뽀, 뿌리 |



● ● 교수 Tip

설명한 발음법에 따라 연습을 해 보게 한다. 1)을 연습시킬 때는 티슈를 입 앞에 대고 거울을 보면서 발음을 하도록 하면 좋다.

2. 잘 듣고 어떤 발음인지 찾아보세요.

- | | | |
|---------|------|------|
| 1) ① 달 | ② 탈 | ③ 딸 |
| 2) ① 동 | ② 통 | ③ 뚱 |
| 3) ① 불 | ② 풀 | ③ 뽕 |
| 4) ① 벌 | ② 펄 | ③ 뽕 |
| 5) ① 공 | ② 쿵 | ③ 꾁 |
| 6) ① 개다 | ② 캐다 | ③ 깨다 |



● ● 교수 Tip

음의 높이나 바람의 양으로 세 자음을 구별해 보도록 한다. 앞에서 듣고 구별해 보는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와 이번 활동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구별에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도록 한다.

3. 노래를 불러 봅시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강중강중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개 고개를 나흔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테야



● ● 교수 Tip

발음에 주의하면서 노래를 불러본다.

4. 다음 문장을 빨리 말해 보세요.

저기 저 공각지는 간 공각지인가 안 간 공각지인가.



•• 교수 Tip

처음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해 보도록 하고, 점점 더 속도를 높여서 연습해 보도록 한 다음에 빨리, 정확하게 말하기 대회를 해 볼 수 있다.

5. 다음 그림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 1) 어디가 아파요?
① (발 그림) ② (팔 그림)
- 2) 뭐 해요?
① (빨래하는 그림) ② (발레하는 그림)
- 3) 무엇이 있어요?
① (토끼 그림) ② (도끼 그림)



•• 교수 Tip

생활 속에서 쓰일 수 있는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한다.

■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야기하고 주문을 해 보세요.

메뉴		
비빔밥	-----	4,000원
갈비탕	-----	5,000원
볶음밥	-----	4,000원
콩국수	-----	4,000원
칼국수	-----	4,000원
김밥	-----	2,000원
떡볶이	-----	2,000원
떡라면	-----	2,000원



● ● 교수 Tip

교사가 식당 종업원이 되고 학생들이 손님이 되어 음식 주문하기 활동을 해 본다. 학생들에게는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되,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동안 발음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학생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나중에 들려주면서 같이 확인한다.

■ 다음 문장을 조금 더 연습하세요.

저기 저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옆집 팔죽은 붉은 팔죽이고, 뒷집 콩죽은 검은 콩죽이다.



● ● 교수 Tip

평음, 격음, 경음의 발음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티슈를 이용해 연습해 보도록 하거나, 위의 문장을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해 보게 한다. 다음 시간에 발음 대회를 해 보는 것도 좋다.